

글. 신춘규_ Shin, Chun-gyu / KIRA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씨지एस 건축사사무소 대표

UIA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 참가보고서

UIA 2014 Durban World Architects
Congress and General Assembly Report

국제건축사연맹(UIA)이 주관하는 UIA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25th UIA World Architects Congress and General Assembly, 이하 World Architects Congress: '세계건축대회'라 칭하기로 함)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항구도시 더반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2017년에 개최될 서울의 제26회 세계건축대회 인수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변용 위원장 외)들과 국토교통부(김용수 사무관, 권희만 주무관), 서울시 관계자(진희선 주택실장, 박순규 과장 외) 및 건축계의 인사들 약 35명이 참석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이번 UIA 제4지역 이사로 선출된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더반 세계건축대회(Congress)의 전반 3일간은 대회의 주제 <Otherwhere(다른 장소)>를 바탕으로 한 기조연설과 논문 발표뿐 아니라 각종 UIA의 Work 프로그램, 학생 및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후반 3일 동안에는 일반 총회(General Assembly)를 하는 형식으로 지난 3년간 임원진과 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관 개정, 새로운 집행부 선출, 2020년 개최지 선정 등 회원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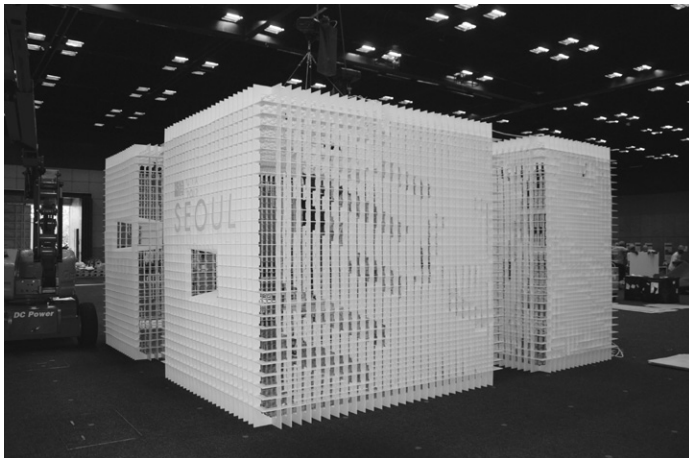


한국대표단

더반 세계건축사대회의 주제 <Otherwhere(다른 장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배운다'는 의미이며, 'Resilience(회복)', 'Ecology(생태)', 'Values(가치)' 세 개의 소주제로 분리하여 하루 한 개의 주제를 놓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대회에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4,200여명의 건축전문인들이 등록하였다. 기조연설자 15명 중에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중국의 왕 슈와 일본의 도요 이토(Toyo Ito)가 포함되었고, 많은 건축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포럼과 더불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UIA work programme이 주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시장에는 각종 자재 전시를 포함한 각 위원회와 회원국 홍보, 지역 건축사단체와 차기·차차기 후보 도시의 홍보관 등 여러 형태의 전시가 총회 전 일정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ICC에 전시되어 차기 대회를 소개한 서울 파빌리온은 다른 전시와는 확연히 다른 컨셉으로 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조직위원회가 주

관하여 젊은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진행한 서울 파빌리온은 이강준(한양대 교수)과 김영아 팀의 당선안(The City of Hidden Dimension)에 따라 13,000피스로 조립되었다. 대회 내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시관으로, 각국 대표들이 방문하여 엄지를 치켜 올렸다.



서울홍보관(설계자 : 이강준+김영아)

대회 폐막식 전에 시행된 여러 UIA Awards의 수여식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I.M.Pei가 올해의 UIA 골드메달을 받았고, 서울시는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으로 탁월한 주거복지에 이바지한 프로젝트에 주는 특별상인 로버트 매튜 경(Sir Robert Matthew)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시상식에는 진희선 주택실장이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계건축대회에는 북한에서도 3명(조선건축사동맹 중앙위원회 심영학 부위원장 외)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다른 대회 때와는 다르게 인사도 나누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하였다는 점이다. 쉬는 시간에는 간단하게 건축에 관련된 대화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자료교환 등을 요청하였다. 대화에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ARCASIA 회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그는 후속 조치로 북한에 ARCASIA에 입회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발송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에는 108개의 회원국 330투표권 중 개략 233투표권이 출석하였으며, 옵서버 포함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회장인 알베르 드블러(Albert Dubler, France)의 진행



'로버트 매튜 경'상을 수상한 서울시 진희선 실장 북한대표 심영학 건축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들 중 회장선거는 현 사무총장인 레바논의 미셸 바마키(Michel Barmaki)와 수석부회장인 말레이시아의 에사 모하메드(Esa Mohamed)가 경쟁하여 에사 모하메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2020년 세계건축대회의 개최지는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 브라질 리오가 경합을 벌인 결과 2차 투표에서 리오가 멜버른을 12표차로 누르고 유치도시가 되었다. 그 외의 주요 결정사항에는 각국 회비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관인 남아공의 트레이시가 제안한 새 회비 산정 안이 결의되었고, 이 새로운 회비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회비가 15,000유로에서 13,000유로로 감소되어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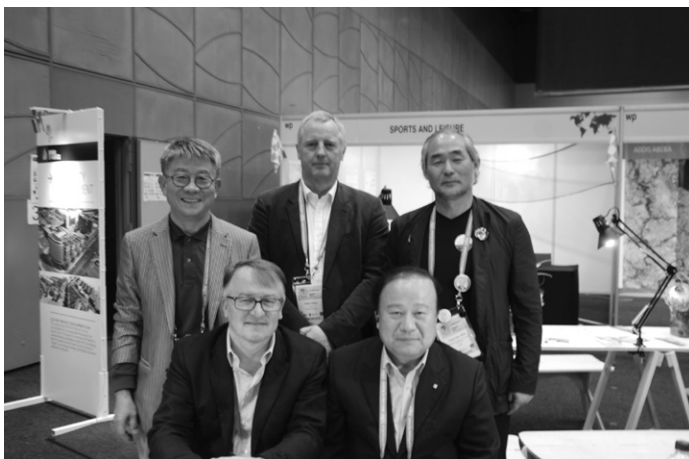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젊은 건축사의 미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 UIA 내 젊은 건축사 위원회를 두고 지역별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4지역의 대표로는 대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뉴질랜드 대표 한국계 Alexandra Jayeun Lee(이자연) 박사가 지명되어 한국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튀니지 등 일부 회원국들이 정치적 문제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난과 무고한 어린 생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UIA 결의안을 채택코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회장의 'UIA 창립 기본정신은 건축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조의 간곡한 반대연설 후 행해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정관에 의한 요구표수인 75%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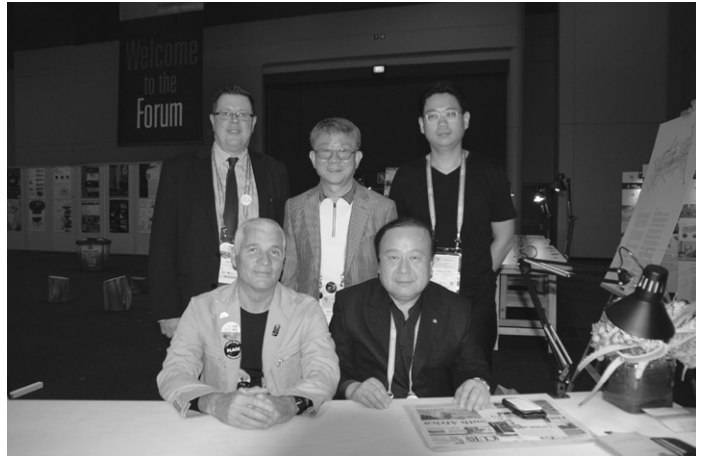
신설된 UIA 젊은 건축사 분과위원들과의 대화

9일, 차기대회 개최를 위한 2017 서울대회 보고의 마지막을 미래재단의 아프리카 어린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 라마코카 팀 공연으로 마무리해 갈채를 받았다.

김영수 회장은 UIA 더반대회 참석 중 유럽건축연합회(ACE, Architect Council of Europe, 회장 Luciano Lazzari)와 영국왕립건축사회(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회장 Stephen Hodder)의 요청으로 일정을 쪼개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상호 인정하고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건축 관련 각종 정보 및 건축 전시 등을 교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MOU 초안을 작성·검토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RIBA(영국왕립건축사협회)와 협의 후 기념촬영



ACE(유럽건축사이사회)와 협의 후 기념촬영

이제는 2017년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건축계가 단합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인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대회를 새로운 건축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멋진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여러 곳에서 이루어왔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축의 차례다. 한국전쟁 후 60여 년간 건축은 경제 부흥과 주택 공급의 논리에 밀려 건설의 하수인으로 자리해왔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의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2017년 세계건축대회가 그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여러 국제활동(2008년 아카시아 대회 및 2011년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아시아 및 세계의 건축인들이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한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이 행사를 통해 국내 건축계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총회 전경



서울대회 인수인계 후

UIA 국제건축사연맹에 대하여

UIA는 비정부단체로서 건축사들의 국가단체연합기구이며 주요 목적은 어떤 차별도 없는 세계 건축사들의 통합에 있다. 1948년 27개국이 모여 스위스 로잔느에서 창립되었고, 현재는 124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북한은 1958년에 가입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한국건축가협회가 1963년에 가입하고 2001년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학회와 함께 FIKA(Federated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로 변경하여 가입 신청을 해 시드니에서 가진 101차 이사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우리협회는 FIKA라는 이름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다.

FIKA 회장은 3단체 회장이 공동대표가 되고 교차로 공동대표회장을 1년씩 순번제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건축가협회의 한중률 회장이 FIKA공동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UIA는 세 개의 주요 조직, 즉 총회(The General Assembly), 이사회(Council Members), 회장단(Bureau Members)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3년에 한 번씩 만나고 3년 동안의 활동보고 및 전략을 의논하며 회장단과 이사회를 구성한다. 회장단은 회장과 직전회장, 사무총장, 재무관 그리고 지역별 부회장으로 구성되고 1년에 2회씩 이사회 중간에 만나며, 이사회 일부가 된다. 이사회는 1년에 두 번씩 만나도록 되어 있다.

3년 마다 개최되는 UIA 세계건축대회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대회(Congress)의 성격을 갖고 후반부는 총

회(General Assembly)로 진행된다. 총회는 3년간의 활동 및 앞으로 3년의 전략 및 비전과 임원 및 이사의 선거 등을 주로 다룬다. 반면 대회는 주제를 정해 주최 도시를 배경으로 각종 UIA Work Programme들을 진행하고,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여 기조 발표를 하게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는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들의 선거와 각종 주요 이슈들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각국의 인구수, 국민소득, 건축사 수 등을 고려해 회비를 산정하고 등록건축사 수에 비례해 투표수를 배정받는다. 회비가 가장 많은 미국은 연 97,000유로이며 한국은 13,000유로이고, 투표수는 미국 11표, 중국 8표, 한국 6표, 북한 1표 등을 보유하고 있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건축계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경제 부흥과 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과 정책수립자의 인식 변화로 지난 몇 년 동안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건축기본법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신설, 그리고 국토부에 건축정책관 설치 등 다양한 모습으로 건축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 부재의 문제는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다. 건축은 아파트가 전부고, 아파트를 사는 공간(居住)이기보다는 투자의 물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건축인들을 짓밟고 있다. 아니 건축인들이 스스로 개발업자들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실무적으로 단단한 기초를 가진 해외 저명 건축인들을 5,000명 이상 불러들일 것이다. 또한 10,000명 이상의 국내의 건축인들이 대회에 등록하여 건축전공 학생들과 젊은 건축인들이 함께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한 다양한 건축축제를 통해 건축이 문화이고 삶임과 동시에 도시일 수밖에 없고 도시가 곧 문화임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이 계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건축계가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건축인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은 더 존중 받고 건축문화의 소중함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후손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